

## 제2절 유럽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동향 및 전망

### 1. 유럽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개요

2010년 유럽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는 394억 4,5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9.1% 성장하여 2015년에는 610억 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장 별로는 이러닝시장이 약 217억 달러, 정보콘텐츠 시장이 약 140억 달러, 솔루션 시장이 약 38억 달러 규모로 나타난다.

(모바일 시장 규모에 대한 기술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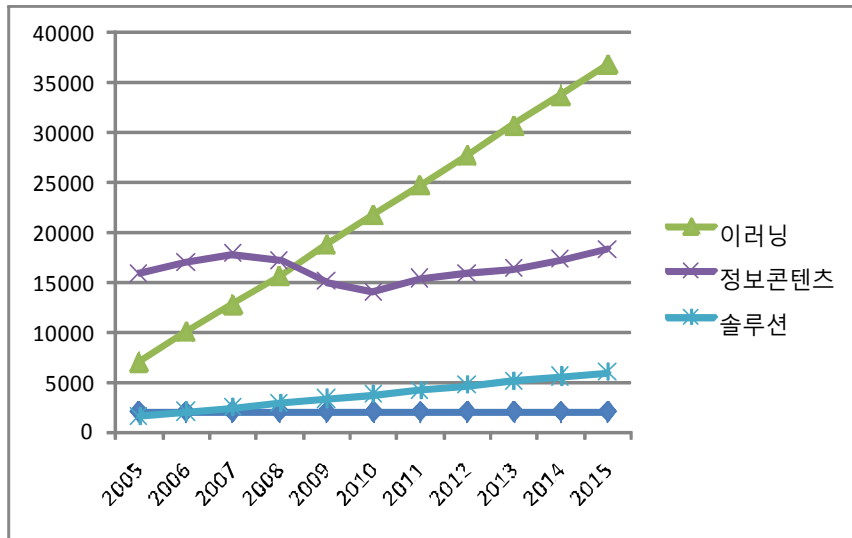
<표 III-3> 유럽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 추이(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이러닝	6,987	10,011	12,719	15,647	18,708	<b>21,674</b>	24,692	27,705	30,693	33,697	36,807	11.2%
정보콘텐츠	15,859	17,002	17,823	17,173	15,085	<b>14,008</b>	15,363	15,864	16,359	17,292	18,281	5.5%
솔루션	1,592	1,994	2,426	2,869	3,329	<b>3,763</b>	4,205	4,653	5,092	5,533	5,992	9.8%
모바일												
합계	24,438	29,007	32,968	35,689	37,122	<b>39,445</b>	44,260	48,222	52,144	56,523	61,080	9.1%
전년대비 성장률		18.7%	13.7%	8.3%	4.0%	<b>6.3%</b>	12.2%	9.0%	8.1%	8.4%	8.1%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그림 III-7] 유럽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분야별 규모 추이(2005~2015)



<표 III-4> 유럽 주요국 이러닝 시장규모 추이(2005~2015)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영국	1,067	1,522	1,935	2,288	2,747	<b>3,196</b>	3,637	4,073	4,507	4,940	5,480	11.4%

독일	1,384	1,986	2,506	3,165	3,958	<b>4,641</b>	5,353	6,052	6,727	7,410	8,256	12.2%
프랑스	1,175	1,675	2,187	2,684	3,181	<b>3,664</b>	4,161	4,668	5,176	5,689	6,327	11.5%
스페인	454	658	804	969	1,135	<b>1,291</b>	1,454	1,614	1,782	1,955	2,171	10.9%
이탈리아	806	1,147	1,413	1,721	2,023	<b>2,321</b>	2,619	2,925	3,216	3,499	3,853	10.7%

이러닝 시장에서 주요 5개국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의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향후 5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도 독일(연평균 12.2% 성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유럽 주요국 정보콘텐츠 시장규모 추이(2005~2015)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영국	2,423	2,585	2,711	2,511	2,215	<b>2,066</b>	2,263	2,332	2,402	2,535	2,722	5.7%
독일	3,142	3,373	3,511	3,473	3,191	<b>2,999</b>	3,331	3,466	3,586	3,802	4,100	6.5%
프랑스	2,668	2,845	3,065	2,946	2,565	<b>2,368</b>	2,589	2,673	2,758	2,920	3,143	5.8%
스페인	1,031	1,118	1,127	1,063	915	<b>834</b>	905	924	950	1,003	1,078	5.3%
이탈리아	1,829	1,948	1,980	1,889	1,631	<b>1,500</b>	1,629	1,675	1,714	1,796	1,914	5.0%

정보콘텐츠 시장의 경우, 국가별 격차가 이러닝 시장에 비해 작은 편이며, 향후 5개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독일이 6.5%, 프랑스 5.8%, 영국 5.7%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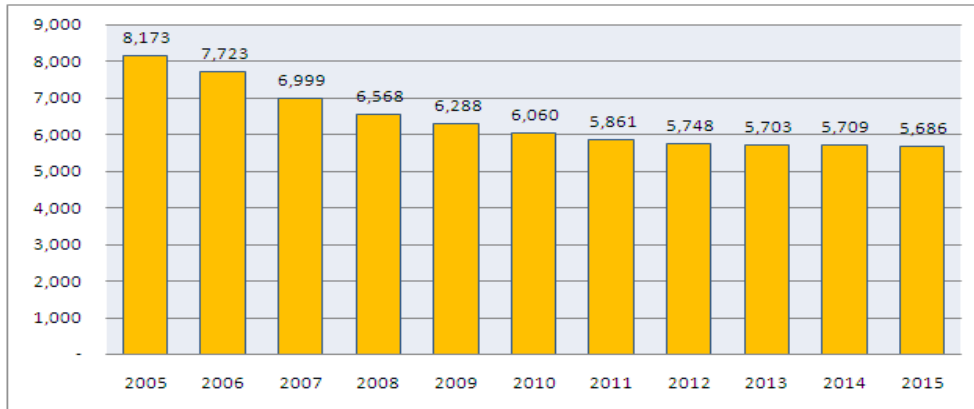
<표 III-6> 유럽 주요국 솔루션 시장규모 추이(2005~2015)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영국	243	303	369	419	489	<b>555</b>	619	684	748	811	892	10.0%
독일	315	396	478	580	704	<b>806</b>	912	1,017	1,116	1,217	1,344	10.8%
프랑스	268	334	417	492	566	<b>636</b>	709	784	859	934	1,030	10.1%
스페인	104	131	153	178	202	<b>224</b>	248	271	296	321	353	9.5%
이탈리아	184	228	270	316	360	<b>403</b>	446	491	534	575	627	9.3%

유럽 주요 5개국의 솔루션 시장은 향후 5년간 약 9~10%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독일로, 현재 약 8억 달러 규모로 나타나며, 2015년에는 약 13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III-8] 유럽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 추이(2005~2015) (재작성)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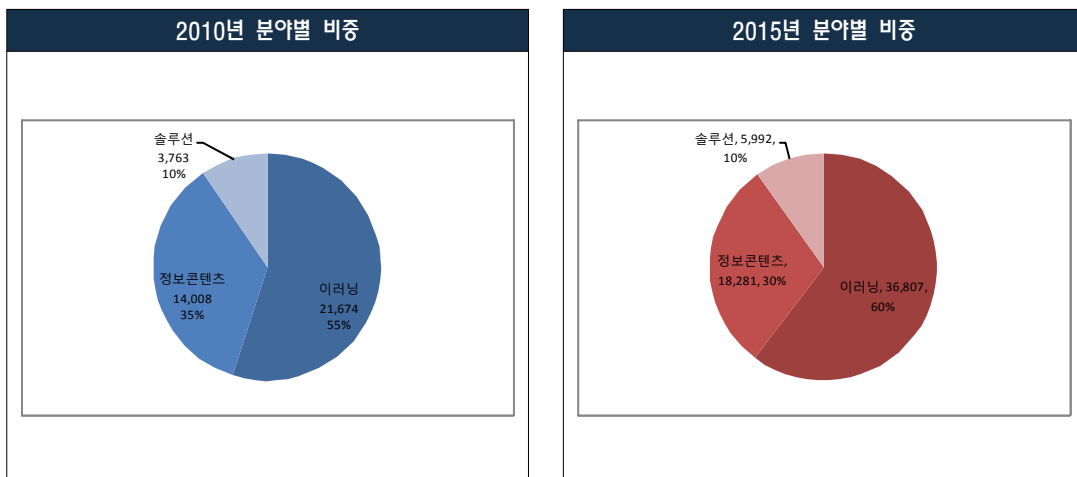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유럽 시장의 분야별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닝 시장은 해마다 높은 증가 추세에 놓여있으며, 모바일 시장이 기타 시장에 비해 50% 이상 높은 성장세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은 권역별 기준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러닝의 비중이 74.0%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미권 시장과 비교해서 디지털 시장보다는 이러닝 시장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향후 5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디지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는 이러닝 시장이 74.0% → 52.2%, 인터넷이 9% → 16.6%, 모바일이 8.0% → 21.9%, 정보콘텐츠가 9.0% → 9.3%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정보콘텐츠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그림 III-9] 2010년과 2015년 유럽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분야별 비중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유럽의 원격고등교육 역사는 1939년에 프랑스가 설치한 국립원격교육센터에서 시작한다. 이후 1969년 영국 개방대학교, 1972년 스페인 국립원격대학 등이 순차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닝을 통한 원격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의 기회 제공 즉 학위취득의 기회를 넘어 지식의 확장, 업무능력의 향상, 교양교육,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유럽 국가 중 스페인의 첫 번째 원격고등교육기관은 1972년 국가 주도로 설립된 국립원격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Educacion a Distancia, 이하 UNED)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국가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수립돼왔다.

UNED는 원격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더해 일반 대학의 높은 중도탈락율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지식정보가 갈수록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반 대학 교육을 실용적인 학문으로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UNED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재학생 수 15만명이 넘는 거대 원격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며 일반 대학과의 격차를 좁혔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UNED와 함께 스페인의 대표적인 원격대학인 UOC는 지난 1994년 카탈루냐 지방(바르셀로나를 지칭)정부에서 카탈루냐 언어와 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 지식정보를 이용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UOC는 설립된 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원격대학이면서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학생 중심의 학사 서비스 실현, 비학위 과정(오픈 코스)에서부터 학사와 석사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석사과정의 경우 1천3백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대학원 코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 세계 각지 600여개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과 협약을 대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적인 고등원격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UOC를 명실 공히 최고의 원격대학으로서 자리매김시켰다.

UOC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의 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관리해오며 따라 10년 연속 등록생 수 증가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UOC 교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을 들 수 있다.

가상으로 운영되는 교실만 2천개가 넘는다. 이는 UOC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교과목 이외에도 세계 87개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연한 교과목 운영으로 학습자가 보다 구체적이며 실용적으로 접근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009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UOC의 등록생은 5만4천여 명에 이른다. UOC 교수 수는 200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70여명 정도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교육을 관리하는 카운슬러가 2천3백여 명이 넘는다. 현재 UOC는 학습자의 관심사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각 개인에게 맞는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교육 방법과 평가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운슬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도할 뿐 아니라 꾸준히 평가까지 함께 진행해 학생의 지속적 학습과 발전을 돕고 있다.

또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학생 평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개발해 학습자의 콘텐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평가는 학기 내내 지속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고, 교과목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거주 학습자들은 학습자 주거지 인근의 UOC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평가는 학교에서 진행될 뿐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학습 평가 방식은 학습자가 꾸준히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UOC는 카탈루냐 지방의 언어인 카탈린과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로도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같은 언어권인 중남미 지역에도 학습관을 설치해 UOC의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해 28만5천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은 전 세계에 개방해 OER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OC는 'UNESCO CHAIR IN E-LEARNING'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에 대한 연구와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UOC의 이러한 활동은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로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활동 중 하나가 UOC의 평화캠퍼스(THE CAMPUS FOR PEACE)다. UOC는 평화캠퍼스를 통해 NGO와 적십자와 같은 기구의 ICT 활용 구현에 협력하고 있고, 가상 포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은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특성을 활용해 UOC가 세계적인 원격교육기관으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데에도 좋은 홍보 전략이 되고 있다.

한편 덴마크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첨단매체 이용에 관심을 가졌으나 오직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교육매체와 교육보조재는 수백 년 동안 덴마크 교육시스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책, 칠판, 백묵, 투시환등기(overhead projector), 오디오카세트, 비디오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보조기구들은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인구 520만, 면적 44,000평방Km)에 매우 적합하다. 덴마크는 무상 공공교육(free public education)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교육기관은 국가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고등교육 수준의 몇몇 과정을 제외하고는 입학요건만 완전히 충족되면 입학허가는 자유롭다. 높은 인구밀도와 잘 갖춰진 교통망은 가정과 교육기관 간에 거리를 좁혔고, 야간수업과 주말수업을 통해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 1세기 이상 계속 실시된 전통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요인으로 학교와 대학에는 노트와 책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형태가 유지되었다. 모든 학생들은 45분간의 수업시간동안 동료학생과 선생을 만날 수 있는 학습에 매일(혹은 성인의 경우에는 매주)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전달방식(delivery mode)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 지원으로 인하여 덴마크의 대부분 교육 시스템에서 교사 대 학생 평균비율을 1대 20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전문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라고 최근까지 이해하였다. 물론 사이버교육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교육방송(라디오와 텔레비전과 통신과정 형태의 사이버교육을 덴마크에서도 활용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이러한 교육방법은 거의 의미가 없는데 공공교육시스템의 주요한 일부분으로서 사이버교육에 관한 어떤 공식적인 교육정책도 최근까지 명백히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이버교육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거의 없었지만 정부는 초기단계에 막 출현하고 있었던 컴퓨터 기술로 전달되는 과정 혹은 모듈(module)과정의 사용증대를 고려하였다.

## 2. 영국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 가. 영국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규모 및 전망

2010년 영국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는 58억 1,6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연

평균 9.3%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5년에는 90억 9,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장별로는 이러닝시장이 약 31억 9,600만 달러, 정보콘텐츠 시장이 20억 6,600만 달러, 솔루션 시장이 약 5억 5,500만 달러로 나타난다. (모바일 시장 추정치 추가 언급)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이러닝 시장의 경우 연평균 11.4%의 증가세로 시장규모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콘텐츠는 연평균 5.7%로서 가장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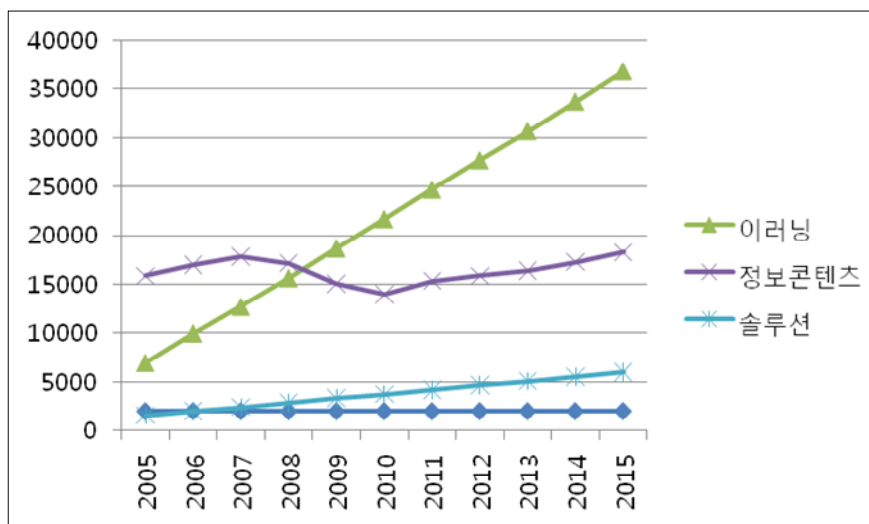
<표 III-7> 영국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 추이(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이러닝	1,067	1,522	1,935	2,288	2,747	<b>3,196</b>	3,637	4,073	4,507	4,940	5,480	11.4%
정보콘텐츠	2,423	2,585	2,711	2,511	2,215	<b>2,066</b>	2,263	2,332	2,402	2,535	2,722	5.7%
솔루션	243	303	369	419	489	<b>555</b>	619	684	748	811	892	10.0%
모바일												
합계	3,734	4,410	5,015	5,218	5,450	<b>5,816</b>	6,519	7,090	7,657	8,287	9,094	9.3%
전년대비 성장률		18.1%	13.7%	4.0%	4.5%	<b>6.7%</b>	12.1%	8.8%	8.0%	8.2%	9.7%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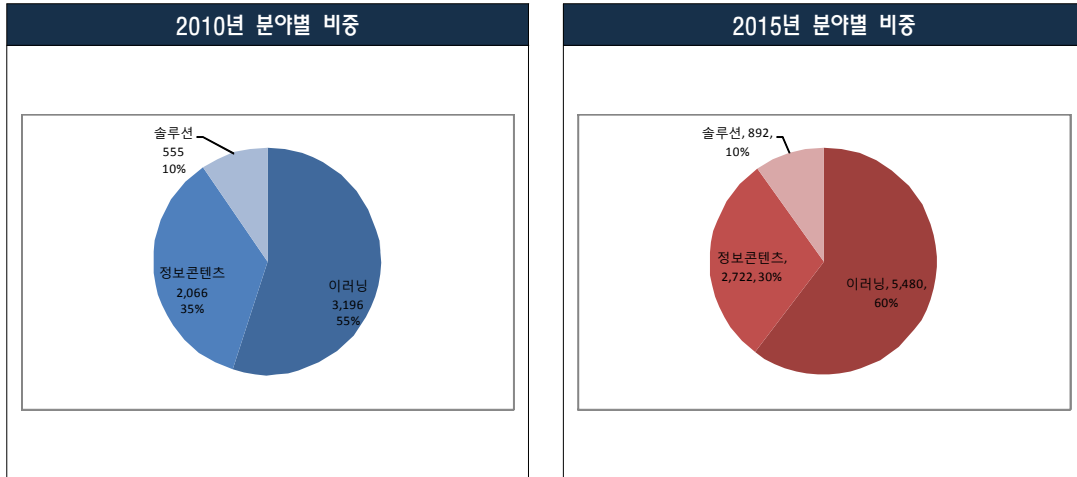
영국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분야별 규모추이는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정체되는 반면 모바일 시장 성장이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2010년 지식정보콘텐츠시장의 약 55%는 이러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에 이 비중은 약 6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에 정보콘텐츠 시장의 비중이 약 35%에서 30%로 감소하며, 솔루션 부문의 비중은 약 10%인 현재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10] 2010년과 2015년 영국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분야별 비중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영국 The Open University는 세계 최초의 개방대학형 대학으로 개교하였다. 영국의 개방대학(OPEN UNIVERSITY: OU)은 1971년에 개교하여 1991년에 개교 21주년을 맞았으며, 1990년에는 학사학위 수여자수가 100,000명을 넘어섰다. OU는 현재 영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대졸자의 9%정도를 배출하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구적인 교육방법,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교육매체, 높은 수준의 교육내용 등의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선구적 업적 외에도, 여타 영국의 대학과는 달리 남녀 학생 수가 거의 같다는 점, 학생의 4분의 3가량이 full-time근로자라는 점, 학생의 약 절반이 생산직 근로자인 아버지를 가졌다는 점(일반대학의 경우는 그 비율이 약 20%), 다른 영국대학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장애자 학생이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에서 볼 때 OU는 영국의 경제발전과 고용의 안정, 사회적 형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방대학의 기원은 1963년 야당 당수였던 Harold Wilson이 Glasgow에서 행한 연설에서 방송대학(University of the Air)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한데서 유래된다. 이것은 라디오와 TV를 교수체제의 총합적인 부분으로서 수용하는 가정학습대학(Home Study University)으로서, 대학 졸업자격을 가진 교사 및 과학자, 공학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60년대 당시의 매년 졸업생 중 6~7%만이 고등교육을 받기위해 진학하였는데 이 비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었다. 런던대학 교외 학위과정(External Degree Programme)에 등록된 20,000여명의 학생 중 7,000명이 통신을 통해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더욱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욕구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이 그 밖의 기관에서 행하는 통신교육 강좌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를 잘 말해 준다

### 3. 독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2010년 독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는 84억 4,6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0.2% 성장하여 2015년에는 약 1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장별로는 이러닝 시장이 약 46억 달러, 정보콘텐츠가 약 33억 달러, 솔루션 부문이 약 9억 1,200만 달러로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이러닝 시장의 경우는 연평균 1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솔루션 부문도 약 10.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정보콘텐츠 부문의 경우에는 연평균 6.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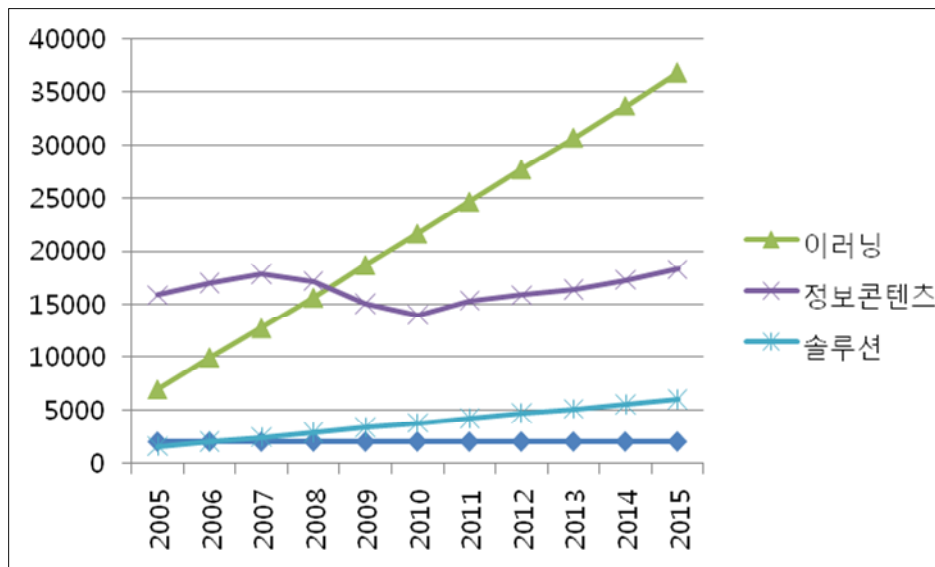
<표 III-8> 독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 추이(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이러닝	1,384	1,986	2,506	3,165	3,958	4,641	5,353	6,052	6,727	7,410	8,256	12.2%
정보콘텐츠	3,142	3,373	3,511	3,473	3,191	2,999	3,331	3,466	3,586	3,802	4,100	6.5%
솔루션	315	396	478	580	704	806	912	1,017	1,116	1,217	1,344	10.8%
모바일												
합계	4,841	5,755	6,495	7,219	7,854	8,446	9,595	10,534	11,429	12,429	13,701	10.2%
전년대비 성장률		18.9%	12.8%	11.1%	8.8%	7.5%	13.6%	9.8%	8.5%	8.7%	10.2%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독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분야별 규모추이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시장변화와 동일하게 이러닝 시장이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면 그 비중이 있어서 정보콘텐츠와의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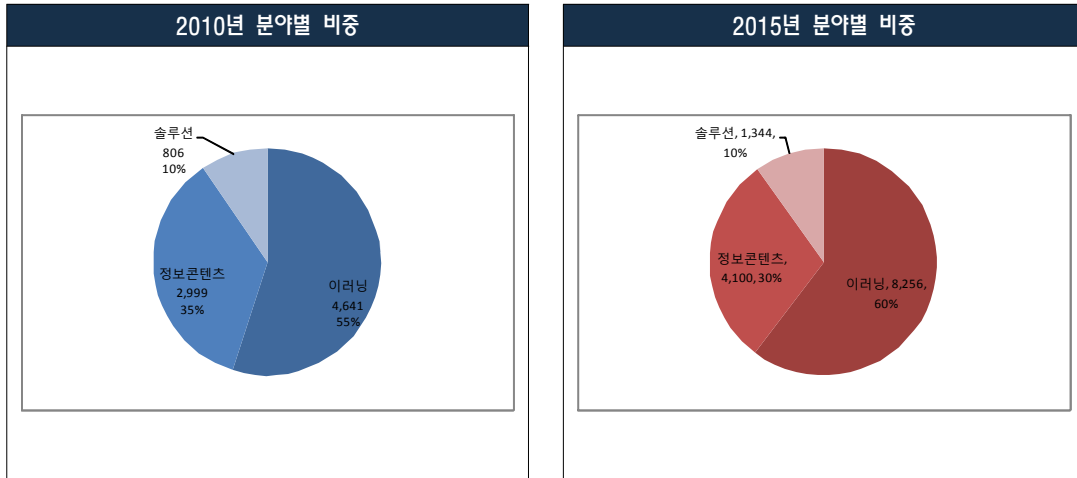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중 이러닝 시장의 규모는 약 55%, 정보콘텐츠가 그 다음으로 3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에는 정보콘텐츠 부문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대신 이러닝 시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11] 2010년과 2015년 독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분야별 비중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 4. 프랑스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 가. 프랑스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규모 및 전망

2010년 프랑스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8.7% 성장하여 2015년에 약 1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장별로는 2010년 이러닝시장 약 67억 달러, 정보콘텐츠 부문이 약 26억 달러, 솔루션 부문이 약 7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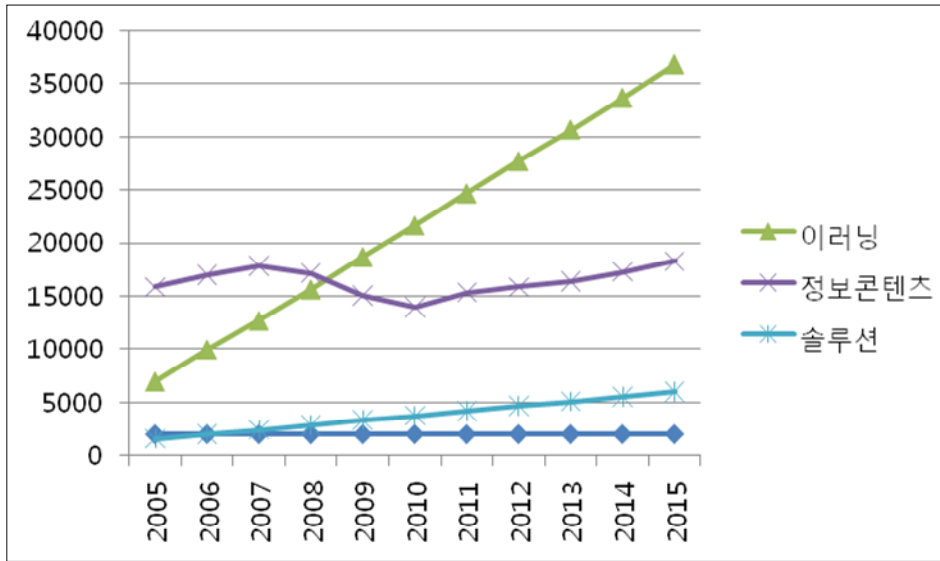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이러닝 시장이 약 9.5%, 솔루션이 10.1%, 정보콘텐츠 5.8%로, 독일이나 영국에 비하여 이러닝 시장 규모 성장률이 다소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I-9> 프랑스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 추이(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이러닝	4,111	4,855	5,670	6,123	6,312	6,669	7,459	8,125	8,793	9,543	10,500	9.5%
정보콘텐츠	2,668	2,845	3,065	2,946	2,565	2,368	2,589	2,673	2,758	2,920	3,143	5.8%
솔루션	268	334	417	492	566	636	709	784	859	934	1,030	10.1%
모바일												
합계	7,047	8,034	9,153	9,561	9,443	9,673	10,757	11,582	12,410	13,397	14,673	8.7%
전년대비 성장률		14.0%	13.9%	4.5%	-1.2%	2.4%	11.2%	7.7%	7.1%	8.0%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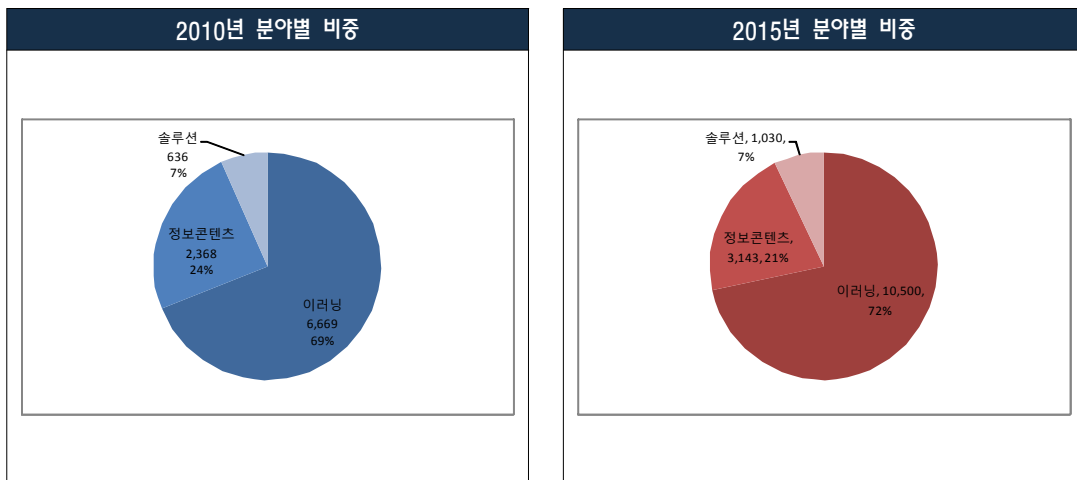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프랑스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중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러닝 시장으로,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그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에 더 성장하여 2015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약 72%를 이러닝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콘텐츠 부문은 2010년 약 24%에서 2015년 약 21%로 비중이 적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III-12] 2010년과 2015년 프랑스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분야별 비중



자료원: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

#### 나. 프랑스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이슈 및 트렌드

프랑스 교육부장관이 유럽 교육 박람회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초중등학교 디지털화를 위해 약 6천만유로(원화 약 910억)를 배정할 계획이다. 그 목적은 양질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 교사 교육,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공간의 일반

화, 지역 단체와의 파트너십 재확인,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책임 있는 사용 교육에 있다. 2011년도부터 공립, 사립학교 교육 자료 개제 사이트를 마련될 예정이며, 중·고등학교마다 “디지털 전담 교사”를 임명하고,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협조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 관련 지역 단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자 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69개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전자 교과서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10년에 그 평가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가방 무게를 줄여주고, 혁신적인 교육 자료를 제시하며 교실에서의 디지털 이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자 교과서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교사들은 콘텐츠의 개발 없이 단순히 포맷만을 변형하여 실시한 시범 사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교실 밖에서의 전자 교과서 사용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실 내에서도 개인용 장치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었다(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2010).